

I. 가치관정립활동 개발배경

1. 목적 및 필요성

한국사회는 1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을 통하여 끊임없이 사회, 경제 및 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들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요구해 왔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사회구성원은 급진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되면 일반적으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적응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더욱이 미성숙하고 사회화과정에 있는 청소년은 더 많은 적응의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첫째, 서구적인 사고 특히 과학적인 실증주의적 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인본주의적 유교사상의 전통을 대신하여 개인주의적 내지는 물질만능주의적 사고가 팽배하게 되었다. 둘째, 급격한 경제성장은 많은 인구이동과 도시화를 유발시켜 공동체 의식은 쇠퇴되고 사람들 사이의 결속력을 떨어뜨린다. 셋째, 기술·경제변화에 뒤따르지 못하는 가치나 규범은 판단과 행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란 시기는 아동기에서는 겪지 못하였던 다양한 가치를 접하게 되어 상반되거나 병행할 수 없는 가치가 혼재하게 되어 청소년의 사고와 판단에 혼란을 초래한다.

변화에 따른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역할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유대감 강화, 부모의 적극적 통제가 있을 수 있고, 사회는 도덕률을 강조하여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기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즉 가정과 사회는 청소년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안정되고 건전한 가치관을 지님으로써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행위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가치는 개인이나 집단의 바람직한 것이나 옳고 그름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쓰이는 기준으로 정의된다.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한

집단 내에서 성원이 공유하는 기준을 반영하고 표현한다. 가치관이란 가치보다 일반화되고 체계화된 개인의 행위의 준칙이며 평가의 기준이 되고 가치에 관한 사람들의 이상 내지 생각을 뜻하는 심리적인 측면이다. 따라서 가치관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이며 행동의 목표와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적 개념이다.

이러한 학술적 개념의 가치관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학습화되고 내면화된 심리적인 구조 내지 체계이며, 행동방향이나 목표선택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 되는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목적물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도덕적이거나 당위적인 가치를 강조하거나 현실에 실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가치관정립에 초점을 둔다. 그 이유는 실생활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 내지 선악의 구분에 있어서 혼란보다는 개인적이고 상황적인 가치를 전전하게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경의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쓰레기 분리를 하지 않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어머니가 자식에게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등이다.

물론 가치관 정립에 있어서 인지 대 행위, 당위 대 실천, 도덕 대 현실의 측면은 상충되고 반목되는 것이 아니라 수레의 두바퀴처럼 균형을 맞춰 발전되어야 한다. 이에 청소년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으므로 기성인이 도덕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가 바라는 바람직한 구체적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이러한 것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그 틀과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자 과제인 것이다.

2. 방법 및 절차

가치관정립활동 개발을 위한 일정 중에서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절차는 활동개발 계획안 발표회, 2차에 걸친 자문의뢰, 그리고 중

간보고서 발표회이다.

첫째, 활동의 기본구성안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4년 4월부터 6월 25일까지 자료수집과 검토를 바탕으로 개발진의 계획안 발표가 1994년 6월 28일 개발원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이 발표회를 통하여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정·보완이 되었다. 수정이 가해진 계획안을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의 자료로 활용을 하였다.

둘째, 자문위원은 두 가지 범주로 위촉이 되었다. 하나는 활동의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 위원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내용구성을 위한 전문가의 개별자문 위원이다. 자문회의는 활동계획안의 전반에 걸친 자문을 위한 것으로 개발진이 개발하려는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문위원은 학술적인 전문가보다는 청소년활동 수련거리 개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현장에서 청소년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위촉하였다. 자문회의는 김영훈(은광여고 연구주임), 김인자(서울YWCA 바른생활교육부 부장), 박철홍(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이창조(교육부 사회과학 편수실 교육연구사) 및 정재결(한국교육개발원 교육사철학부 부장)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1994년 7월 7일 (목) 9:30에 한국청소년개발원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자문회의와는 별도로 개발내용 구성을 위한 전문가의 개별자문이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학자 세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세부적인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았다.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의뢰하였고, 각 자문위원이 대담 형식이 아니라 글로 제시된 자문내용을 개발진이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위한 시간은 1994년 9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주가 설정되었다. 위원명단은 김진욱(연세대학교 강사), 박승희(성균관대학교 교수) 및 장준오(성균관대학교 강사)이다.

셋째, 중간보고서 발표회는 1994년 9월29일 개발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발표회는 원내에서 개최되는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토론회였다. 가치관정립활동의 개발취지와 목표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 졌고, 구체적인 활동내용의 구성의 정교화와 구체화에 대한 평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수정과 보완작업이 실시되었다.

Ⅱ. 가치관정립활동 내용탐색

1.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

일시 : 1994년 7월 7일 (목) 9:30-12:30

장소 : 한국청소년개발원 회의실

1) 자문위원의 구성과 의의

자문위원은 학술적인 전문가보다는 청소년 지도자, 일선학교 교·강사 등 현장경험자 중심으로 위촉하여, 자문회의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토론회를 지양하고 수련거리의 내용이 얼마나 수련현실에 맞게 방향이 설정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자문받는데 의의를 두었다.

자문회의는 개별자문과 더불어 개발진의 가치관정립활동 수련거리 개발의 방향을 점검하고 공개적인 타당화과정을 거치면서 수련거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 명단
김영훈(은광여고 연구주임) 김인자(서울 YWCA 바른생활교육부 부장) 박철홍(서울대 교육연구소 연구원) 이창조(교육부 사회과학편수실 교육연구사) 정재걸(한국교육개발원 교육사철학부 부장)

2) 자문회의의 기대효과

- ▷ 청소년의 수련거리는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현장성이 강조됨. 따라서, 개발진의 세부계획서가 얼마만큼 현장 또는 실천 중심으로 구성되는지를 자문받음(현실성).
- ▷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노력과는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수련거리의 내용과 주제의 괴리현상 내지 편협함을 방지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함(타당성).

- ▷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이 과연 수련거리의 고유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자문(신뢰성).
- ▷ 수련거리의 내용이 현장에서 얼마나 용이하게 실행될 수 있고 응용이 가능한가를 자문(편리성).
- ▷ 개발될 수련거리가 현장에서 산 경험을 한 전문가의 욕구를 반영한 것인가를 확인함(현장성).

3) 자문회의의 토의내용

- ▷ 현재 청소년의 가치관은 문제인가?
- ▷ 청소년의 가치관은 사회적인 산물인가?
- ▷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과 실천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 ▷ 지금까지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 중에서 어느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 ▷ 실천가능한 미풍양속이나 덕목이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실천하는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4) 자문회의의 진행

이 완 수 가치관정립활동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꾸밀 때 저희가 전제로 두는 것이 청소년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지만, 워낙 한국사회가 근 100년에 걸쳐서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적응을 못하는 것으로의 부산물이 청소년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 가치관을 제대로 내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런 가정으로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겪어 왔고, 이것이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긴장과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이 긴장과 스트레스가 왜 생기냐 하면 적응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 사회가 변해 왔는지에 대한 간단한 역사적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동양적인 사고나 인본적인 사고가 개화기를 통해서 서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옴으로 해서 개인주의적 사고나 물질만능적인 사고가 팽배해 졌다는 게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그와 더불어 급격한 경제성장이 인구이동과 도시화를 유발해 흔히 말하는 공동체의식과 결속력이 떨어져 청소년들이 어떤 가치를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문화지체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비물질문화에 대한 물질문화, 물질문화의 발달을 비물질문화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제도 같은 것은 발달하는데 가치가 그것을 통제해 주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번째는 청소년은 생물학적으로 변화가 심하고 다양한 가치를 생각하고,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변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치관의 정립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치라든가 가치관이라는 정의는 워낙 학술적인 정의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자기가 가치관을 발전시켜서 행동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고, 무엇이 옳고 그름가에 대한 판단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제가 생

각하기에 도덕적이거나 당위적인 가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동안 개발되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당위성 내지는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활동으로 나오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활동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지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과 더불어 인지를 하고, 인지와 더불어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이러한 계획서를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평가를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개발할 내용을 나름대로 4가지로 구체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첫번째는 가정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가치관, 두번째는 청소년들 대다수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가치관인데, 학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이라든지 교육환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사회생활인데, 사회생활이라 함은 지역사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사회생활입니다. 네번째는 저희가 일반적인 가치관정립활동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여기서 일반적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으로 개인 심리적인 것을 포함해서 국가에 대한 것까지를 포함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세 가지와 차별화시키면서 꼭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런 가치관을 빼놓고는 다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없다는 생각 하에 뭉뚱그려 일반적인 가치관정립이라고 범주를 달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학생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자 하는 도덕적인 것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행동하는 가치관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저희의 제일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주는 것이 가치관 정립의 첫단계라 생각을 합니다.

정 제 결

저도 가치관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비슷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발달한 자유주의, 개인주의와 산업화된 가치관들이 커다란 하나의 대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들보다 청소년들이 그런 가치관에 더 근접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팀에서 의도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실제로 유럽에서 했던 소시얼 스타디(social study)에서 학생들이 했던 역할극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겪게 되는 것, 그리고 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역할들을 실제로 학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장면에서 실제로 겪어 보면서 다양한 가치관을 미리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면 이 연구는 잘될 것 같습니다. 교사들도 필요하고 학생들도 자기들 가치관이 주제에 잘 맞으니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나라 아이들이 도덕성발달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보았더니, 결과가 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은 도덕성이 높게 나오고, 빈민촌의 아이들은 도덕성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로동에 있는 국민학교를 보면 주변 값을 것을 시키면 새벽같이 나와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자체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아이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과연 어떤 것이 도덕이나 하는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보면, 왜 사느냐 하는 문제들과 자기의 존재의미가 무엇이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구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만약에 청소년 지도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전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2박 3일동안 치악산에서 수련활동을 함께한 적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중에 자연과의 교감이라고 해서 나무 앞에 한참동안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혼자서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 말씀이 프로그램 속에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각박하게 지내다가 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는 한번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 철 홍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에서 한국 가치관의 문제를 제기한 요인들을 보면, 서구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 인본주의적인 유교사상 전통이 무너지고, 공동체 의식이 쇠퇴되었고, 그런 결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하셨는데, 만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가치관이 문제이고, 어떤 가치관을 지향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면서 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를 테면 우리나라 충효에 강조를 두는 수련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수련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럴 경우 지금 시대적으로 민주시민의 가치를 조장하자는 것도 좋은 수련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서구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수련거리도 생각할 수 있고, 그것과 상반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도 수련거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사이에 가치표준에 대한 정립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것들을 각자 나누어서 필요한대로 서구적인 자율성이라든지 능동적이라든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지향하는 수련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로 보면 우리 나라 전통을 강조하는 가치들은 약간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전통예절을 강조하고, 충효를 강조하고 우리 나라 본래의 미풍양속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경제발전하고는 반대되는 것인데, 경제발전을 조장하는 것도 하나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연구의 기본적인 방향은 어떤 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가치관을 생각하시고 연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완 수 가치관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서구의 합리적인 가치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합리주의라고 한다면 개인주의라는 것과 틀림에도 불구하고 합리주의가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된 합리적인 가치관을 확립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하나로는 우리 나라의 고유의 가치

를 확립시키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가 어떤 가치는 좋고 어떤 가치는 나쁘다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참여해서 느끼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구체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서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인 자 제가 YWCA에서 청소년 부서 일을 오랫동안 해서 캠프도 다녀오고, 교육과 관련해 세미나도 했고, 중학생 딸도 있고 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궁금한 것이 이런 것을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할 때 실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분들과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고 있나 궁금하고, 더 나아가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자료가 청소년단체들을 대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가치관 문제는 단순하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고민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처음 주제에 청소년 가치관은 현재 문제인가 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를 읽으면서 과연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분석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요즘 아이들은 고민을 하지 않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주어진 갈등은 공부라든지 몇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몰아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가치관을 생각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는 것에 상당히 둔해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치관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은 뭔가, 내 자신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놀라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단순히 생각하고, 단순히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성찰을 통한 놀라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수련거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사회변화에 청소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나 가정이 잘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전통적인 가치관이든, 서구적인 가치관이든 등등 그것이 연구과제이기는 하지만, 어떤 가치관을 제시하든 간에 당위적인 가치관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청소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청소년들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나 사회가 서로 협력을 해야만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나 가정이나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부우선이라는 것으로, 큰 흐름의 가치관도 공부를 잘해야 사회생활도 되고,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것이 사회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 사회적인 주변의 모습과 우리가 당위적인 가치관이라고 제시했을 때, 청소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낌이 청소년 문화라든지 청소년 인격성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교육여건과 별개로 취급되었을 때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정립문제에서 가정과 학교의 협력관계가 같은 중요성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치관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식, 공동적인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문제이지만, 개인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어떻게 공동체적 의식을 제대로 세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냉정하게 꼬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그래도 개인 행복이라는 것이 사회 전체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이상적인 가치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정이나 사회가 뭔가 잘못된 개인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에게만 그래도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문제를 다루면서 주장을 했던 것이 학교가 문제냐 학부모가 문

제냐, 아니면 사회전체의 교육 가치관이 문제냐 하는 것이 모두 맞물려 있는 것인데, 결국 학교에서는 아무리 인격성숙을 위한 교육을 하려고 해도 학부모들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많은 교육문제의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교육문제가 청소년 문제와 얽혀 있는데 그래도 교육의 주권을 학교 당국과 교사들이 강력히 확립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전체 행정의 결과를 수치로 해석해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서울대를 얼마만큼 보냈느냐, 일류대를 얼마만큼 보냈느냐 하는 것에 따르게 됩니다. 결국 나는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가고 싶어도 서울대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 학교를 가라는 충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늪에서 결국 학교가 교육주권을 제대로 세워서 청소년들의 가치관 문제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의 중요성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부모들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꼭 연결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개발된 같은 곳에서 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문화 수용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 변화, 가치관 변화가 많이 있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들 중의 하나가 문화 전반 문제입니다. 지금 멀티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는데, 집에서 부모가 감독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컴퓨터가 방안이 아니라 거실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도 있는데, 통신으로 말미암아 가장 유해 장소가 집안이 되어 버린 거지요. 문화 수용 이것이 학교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교육에 대한 자료가 개발된 같은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어느 누구한테나 계속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자료,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영 훈

가치관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접어두고라도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남학교에 있을때 보이스카웃 대장을 하면서 야영도 가 보았고, 교회를 다닌지 30여년이 되면서 피정이라는 것도 가보았습니다. 피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힐 수 있고, 나의 관념을 지배하는 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피해보자는 것입니다. 가해보면 상당히 좋고 많이 배운 것 같지만, 나와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시 나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주제를 받고 방향이 잘 잡히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몇 가지 물어 보았습니다. 대상이 입시를 앞둔 3학년 두개 학급을 가지고 설문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본 개발원에서 요구하는 놀이 자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아라 했더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더군요. 그 중 한 학생에게 “그런 놀이를 하고 났을 때, 너의 행동은 어떠했느냐” 했더니 “그냥 좋았지요” 하더군요. 결국 다시 돌아서서는 다시 찌 들어야 되고, 또 어차피 사람들 속의 뉘집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토론내용중에 청소년 가치관은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가 과연 문제인가 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원화되고 국제화되는 이런 사회에서,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만을 강조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기주의가 나쁘고, 물질만능주의가 과연 나쁜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국제화 사회에서 그런 사고가 과연 나쁜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놀이지도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활 연구주임을 맡고 있는데, 제 갈등이 뭔가 하면 왜 인문학교에서 이런 것을 시키느냐는 것이지요. 그 시간에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진로지도할 것이지 왜 시간을 빼앗고, 학생들을 피곤하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저도 잘 듣

고 학교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학생들이 이야기한 놀이에는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그네타기 등이 있는데, 그런 놀이를 예로 든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학생들이 그런 놀이를 통해서 서구적인 개인중심주의보다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역할을 바꾸어 해보기 등도 있었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를 나누어 물어 보았더니, 명상, 서울 학생들이 논밭에 들어가 보기, 놀이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반별로 꽃도 심고 채소도 심어서 생명체가 커 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치관이라는 말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가치관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본 개발원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것에 놀랐습니다.

이 창 조 학교 밖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자 자신이 신념이 없으면 형식적인 연구에 그친다고 봅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체활동이 4가지가 생겼습니다. 이 활동과 관련해서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단체 활동은 교련 교사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옳은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고려할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어디를 중시할 것인가, 공동체, 개인 어디를 중시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나 흑백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 중에 심성훈련과 같은 것을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속에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전부 4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32권째 ‘아동교육’이라는 책을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박 철 홍

정선생님이나, 김선생님 말씀의 부연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청소년의 가치관 문제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청소년들의 문제인가 사회전반의 문제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수련거리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혼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성인들은 어느 정도 정립된 가치관이 있어서 혼란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청소년들의 성폭력이 문제라고 할 때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인제공은 이미 사회에서 성인들이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마약과 같은 문제도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청소년들이지만 문제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성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하는 일은 잘 드러나지 않고, 청소년들이 하는 일만 드러나서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문제는 성인들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문제가 단순히 청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프로그램 방향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가정이라든지 사회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을 맺지 않나 합니다. 따라서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치관 정립이라고 하는 것의 포함대상, 즉 이 사회라는 넓은 개념은 어떤 식으로 범주화하고, 어떤 식으로 나누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련거리를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학교 다닐 때의 보고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범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보다 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요소들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면, 가치관을 형성시키겠다고 하는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성격을 띠어야 할 지 모르겠고, 합리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모자르니까 이 부분을 보충해 주어야 겠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일 하나의 요소가 들어가거나, 빠지면 전체

가치관의 모양새가 일그러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하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치관은 올바른 방향, 또는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또는 있기를 생각하는 정도로 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판을 위한 옹호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치관에 대한 실상이 아닌가 합니다.

개발원의 역할이 어느 한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나온
김 인 자 다음 지도자들 워크샵이나, 실제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어지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구분을 네가지 분야로 하셨는데,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사회생활 가치관 프로그램 예만 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사회생활 가치관에 청소년들의 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활동이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먹고, 쓰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환경에 얼마만큼 커다란 심각성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일반적인 가치관정립활동 부분에서도 지금 저 역시 앓고 있는 문제인데, 확실적인 평가의식이 저도 고정적인 것으로 깨기가 어려운 것인데, 지금 아이들에게만이라도 삶을 보고 자기 인생을 보고, 사회 여러 가지를 보는 것으로 확실적인 의식에서 아이들이 더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삶은 이런 것이고 성공이 중요한 것이고, 수단은 전혀 중요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은 능력이 다양하고, 어느 삶이 성공한 것인지 확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다 인지가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문제로 왔을 때는 이중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어른들이 하는 평가들에서 아이들이 조금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김 영 훈

가치관이라는 말이 애매한데, 만일 이것을 현실화시킨다고 하면 수련거리의 제목을 가치관정립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수련거리라든지, 또는 자기자신을 스스로 통제해 볼 수 있는 수련거리라든지 이렇게 되면 가치관정립활동이라는 것보다는 접근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주제로 하면 그 자체가 수련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재 결

가치관의 범위를 좁혀서 실제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이나 봉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확대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평소 믿고 있던 내용들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이 그 시간동안에 상당히 혼란되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자신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었으면 합니다. 정신문화연구원의 이계학 선생이 개발한 ‘단군신화 재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토굴 같은 곳을 만들어 일정시간 지난 다음 정이 울리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 분이 가치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2. 개발내용 구성을 위한 개별자문

자문회의와 더불어 개별자문은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의 객관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개별자문과 자문회의의 가장 큰 차이는 개별자문이 보다 더 구체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그 하나이고, 연구자나 학자 중심의 학술적 자문을 받는 것이 두번째 차이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집 개발의 내용에 따라서 세 명의 자문위원이 선정되었다. 각 자문위원은 포괄적인 내용을 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각 세부내용에 한정하여 자문을 하였고 각자 글로써 정리하여 주었다.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본 개발원의 개발계획안 발표회에서 수렴된 사

항을 기초로 하여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문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의 범주와 개별자문위원들에게 의뢰한 내용의 범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문회의에 참가한 위원들은 사회관계망에 근거하여 작성된 개발계획서(가족, 친구, 사회 등)를 평가하였지만, 개별 자문위원들은 차례로 심화되는 단계적 프로그램(인식, 이해, 실천)을 평가하였다.

기간 : 1994년 9월 24일 부터 10월 29일

1) 인식*

가.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사회의 위기의 원인이 사회윤리의 붕괴에 있음은 양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한결같이 지적되고 있는 사실이다. 사회윤리의 붕괴는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 모든 면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활붕괴의 모습을 찾아보면 공해와 환경문제, 집단 이기주의, 극심한 빈부격차, 빈번한 자살, 동기가 부족한 폭력범죄 만연, 국민저변에 침투하는 약물남용, 청소년 탈선 등 무수히 많다.

‘총체적 난국’ 이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도대체 왜 나타나고 있는가? 이는 바로 급속한 산업화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혼돈 때문이라고 줄여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과연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할 신세대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미래의 문화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21세기 선진사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활동’이라는 연구주제는

*김진옥(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강사)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좁은 경험으로 편향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인식시키고자”하는 작업은 그 연구가치가 높게 인정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면 그러한 병폐를 치유하는 작업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으며,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갖고 가치관을 정립하라고 하는 작업은 또 다른 구호에 불과한 것이 되리라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유발된 정경유착, 부정부패, 극심한 빈부격차, 부동산 투기 등의 사회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것이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비생산적이고도 불건전한 분위기를 팽배시킨 것이라고 할 때, 사회구조의 변혁이 따르지 않는 한 이러한 연구의 실행이 기대하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매우 아쉽다.

하지만 다양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각자의 자로 상대방을 평가할 때 범할 수도 있는 우를 줄여 보자는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이 작업의 효과가 인정된다.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며 그 자체의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논리가 개인 행위와 선택을 좌우한다는 자각과 더불어 사회의 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가치관 정립 역시 사회윤리의 차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나. 연구계획서에 대한 지적사항 및 제언

가) 연구목적

연구자는 가치관 중에서도 특히 ‘바람직한 도덕적인 가치관의 형성’, 즉 윤리의식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기성인들이 도덕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가 바라는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연구목표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대 한국사회의 기성인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의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현대 한국의 사회윤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서만 질서가 유지되고 안으로부터의 윤리의식에 따르는 자율의 힘으로 혼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 모두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매우 불충분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불충분한 윤리의식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서 하나는 윤리의식의 강도가 부족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내용의 타당성을 잃었을 경우이다(손봉호, 1991).

한국인의 윤리의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다 해당된다. 전자의 경우 해방을 계기로 윤리라는 것을 무용지물로 보는 풍조에다 물질만능의 가치관이 우세함으로써 윤리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도덕적 의지가 약화되었다. 후자의 경우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생겨나게 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시민윤리의 도덕률이 정립되지 못하였다.

윤리의식이 미약하고 이기적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과생하는 또 하나의 폐단은 불신풍조이다. 법 또는 도덕률이 일반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람들끼리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법과 도덕률을 지키지 않는데 자기만 그것을 지키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도 법과 도덕률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앞서야 사람들이 사회규범을 따르려고 할 것이다(김태길, 1991).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시민윤리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윤리의 확립은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제도, 체제, 상황, 풍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들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소비를 포함한 경제윤리를 바로 잡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와 권력에 의해 비윤리적 분배를 조장하는 사회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윤리는 인간행동을 구제하는 의식적인 가치체계가기 때문에 올바르게 건전한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가장 근본적이고도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장은 가정, 학교, 사회이다. 사회윤리의 정립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가정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철저한 인격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윤리가 지배한다. 또한 가정은 사회윤리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반면 윤리적인 타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서 사회윤리 확립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손봉호, 1991).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 이기주의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면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와 사회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 프로젝트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윤리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인위적인 제도의 하나이며, 인간의 자유에 근거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자발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는 가치라는 것이다.

나) 관련연구

(가) 현재 우리 나라의 가치관

연구자는 ‘관련연구의 고찰’에서 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으며, 대개 하나의 설명변수로 가치관을 이용한 연구들만이 많다고 지적했으나, 한국 사회의 가치관에 대해서 현상을 분석하고 또 규범적으로(normative) 접근한 것들이 있어서 참고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국내 연구에서 특히 한국사회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점과 또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조은정, 1993).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기주의와 공동체의식의 부족이었다. 즉 공익과 공공선에 대한 가치 인식부족, 파벌주의와 연고주의, 흑백논리, 자기과시와 비타협 등이 그것이다. 이의 반대가치로는 공익과 인류공영, 상부상조와 조직속의 인화, 개방성, 올바른 개인주의와 공동체의식 등 우리고유의 공동체문화를 회복하여 협력과 조화의 관계로 새롭게 규정되기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도덕과 불법에 관한 내용들도 역시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였다. 즉 타산주의, 왜곡된 출세의식과 요령주의, 부패와 편법, 준법정신부족과 범초월적 사고, 무질서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이에 반대되는 가치로서는 정의 실현과 공정성, 준법정신과 정직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왜곡된 가치로서 배금주의, 인간경시와 물질만능적 사고, 외면적 가치 우선 등이 제시된다. 따라서 이의 보완가치로서 사람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는 조직원리 추구, 생명 인격 학문 예술 도덕 종교 등 내면적 가치와 함께 친애와 구호욕구, 정신우위 등 우리 전통가치의 회복이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 우리사회에 전통적으로 뿌리깊은 문제로서 권위주의와 형식주의, 그에 따르는 창의성 결여와 권위주의적 가족관계, 대화문화 결여 등도 많이 제시되는 문제점이다. 이의 반대가치로서는 민주정신이 그 중심으로 나타났다. 즉 권력의 집중은 줄이고, 모든 시민이 스스로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과정에 골고루 직접 참여하는 소단위의 집합체로 재조직되는 가운데 사회적 희소가치도 공정하게 배분되며 권력은 시민의 감시와 사회적 통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개인성과 창의성을 복돋운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평등의식 부족과 남존여비, 삶의 기회 불균형으로 연결된다. 또한 주인의식 결여와 인권유린, 타인 추종적 사고방식과 의타심 등 기본적인 인권 경시의 문제가 제시된다. 한편 권위주의가 대외적으로 표출된 양상으로 우리의 오랜 역사에서 나타나는 사대주의와 권위에 대한 이중적 태도 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반대가치로서는 세계성 속의 민족정신, 자립정신 등이 제시된다.

또 운명론과 미신적 사고방식, 기술천시 등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비과학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치밀한 분석능력이 부족하며 과거에 집착한다는 문제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대가치로서는 진취성과 과학적 사고, 투철한 직업의식, 지식중시 등의 합리적 생활양식이 제시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에 치중한 근시안적 사고와 적당주의가 지적된다. 성급하고 즉흥적이며 근본치료보다 대증요법 중심의 현실 집착적 태도가 그 예일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과 통합적 사고방식 등이 그 반대가치로서 제시된다.

(나) 소비에 관한 가치관

일반적으로 산업기의 소비자는 소유의식이 강해서 ‘많이 소유할수록 좋다’는

가치관이 보편화되면서 물질적 소유, 사적 소유를 중요시하고 더 많은 품목, 더 큰 사이즈의 재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산업기 소비자의 가치관이 우리 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불공정한 부의 분배로 인하여 크게 왜곡되고 있으며, 사회윤리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과소비의 원인과 형성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이 되면서도 과소비의 대책이라는 맥락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우리 나라 국민의 가치관이다. 황금만능의 물질제일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자는 수단주의, 무엇이든지 당장에 이루고자 하는 임시주의 등의 가치관은 우리 나라 특수한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한 결과이다.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은 고생을 면하지 못하고 부정직하며 애써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큰소리치며 잘 사는 모습은 계층간의 균열을 심화시켜서 소외계층을 좌절하게 만들고 부유한 계층들을 개인적인 이기심과 가족이기주의에 빠지게 하여 안일하고 소비 지향적인 생활 속에서 사회윤리의 문제에 무관심하게 만든다.

우리 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과소비는 토지투기나 부정부패 등 비생산적인 방법으로 거대한 불로소득을 획득한 불로소득자들이 자행하는 몰상식한 사치와 낭비이다. 즉 과소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소비를 유도하고 있는 고소득층의 소득에 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현재의 소득분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과소비 풍조는 단순한 우려의 단계를 넘어서 국민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단계에까지 와 있다 할 수 있다. 과소비 또는 사치는 개인을 무력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윤리관을 그림자처럼 사회를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불로소득의 증대, 소득과 부의 편차가 오늘날의 소비열풍과 향락산업의 번창을 주도하고 있으며, 과시적 소비를 비롯한 과소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베블렌도 과시적 소비를 당시 미국사회의 전반에 걸친 병리적 현상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그 주역이 생산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유한계급임을 강조하였다(김문조, 1987).

또한 과소비 풍조는 성인사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나 아동의 세계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외제품 선호, 향락업소 출입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 우리 나라의 청소년 범죄가 양적으로 급증하고 질적으로도 흉악하게 폭력화하고 있는 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주로 소비욕구 충족을 위한 유흥비의 조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절제 없는 생활이나 방종과 낭비가 그대로 전달되고 답습되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에 만연된 소비성향과 사치풍조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물질주의적 자극이 되며 사회 이탈행동의 유발을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과소비문제를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건전한 소비윤리의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 미래사회의 가치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과연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할 신세대인 청소년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미래의 문화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21세기 선진사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을 점검해 보고, 나아가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소비자위주의 새로운 문화를 모색하기 위해 ‘후기산업사회’에 관한 이론을 소개한다.

미국의 Stampfl(1982)은 시대적 요인에 의해 소비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산업기 소비자(Industrial Consumer)
1. 1920년에서 1960년 사이에 성년기에 도달한 사람들로, 2. 물질소유, 사적소유, 편의성 추구사회에서 성장했으며, 3. 축적을 중요시하고,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며, 4. 자신의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

과도기 소비자(Transitional Consumer)
1. 196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성년기에 도달한 사람들로, 2. 인플레이션, 에너지위기, 자원결핍, 공해문제, 정부규제 등이 문제되는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3. 기존 가치와 사회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의무사이에서 갈등한다.
후기산업기 소비자(Post-Industrial Consumer)
1. 1990년 이후에 성년에 도달한 사람들로, 2. 소유보다는 사용에 관심을 갖고, 임대나 공동소유도 선호하며, 3. 양보다 질을 추구하게 된다. 4. 소비자주의가 중심가치로 대두하는 사회이며,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다.

또한 1950년대말 이래 오늘날까지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끈질기게 예고해 온 다니엘 벨(Bell, 1973)의 ‘후기산업사회론’에 의하면, 그 사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생산의 기술적 토대가 기계나 장비로부터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로 바뀌게 되며, 제조업 대신 정보관련 산업 또는 지식 산업이 주도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또 사회구조 및 계급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종래의 산업사회에서 특징적이던 계급갈등과 권력집중현상이 해체된다. 노동운동 대신 시민운동이 사회변동을 추진하는 주요세력으로 등장하며 다원화 및 분권화가 진행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물질 기반으로 삼아 왔던 기계공업중심의 생산이 전자통신 등 첨단 기술과 자동화로 대체됨으로써 산업주의적 한계와 모순에서 비롯되는 자본/임노동의 계급들이 신봉하던 자본주의/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도 무의미해 진다(채인용; 이기춘, 1993).

인간의 역사 전체를 통해 볼 때, 사회의 가치체계는 아주 서서히, 그리고 아주 미미하게 변화되었다. 각각의 세대는 그 자신의 가치들을 단순하게 투사함으로써 상당히 정확하게 다음 세대의 가치들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00년 동안 가치변동의 속도는 무섭게 가속화되었다. 미래 세대의 가치가 우리 자신의 가치와 비슷할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단순한 직선적인 투사에 의해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21세기위원회, 1992).

이제 경제발전, 기술진보, 과잉부유는 인류에게 무조건 선은 아니다. 종래에는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소비수준의 향상이 무조건 선으로 간주되어 왔고, 사회일반의 상식이었으며, 경제학자와 기술과학자들도 이 상식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여하는 수단의 개발에 전력을 다해 왔지만, 이제는 보다 다른 차원에서 ‘삶의 질’과 관련되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가치관이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했던 갖가지 병폐들을 타파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의식구조를 말한다. 가치관이란 사회에 따라서, 같은 사회라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사회발전이란 것이 ‘삶의 질과 기회를 향상 증대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사회의 자원들이 정당하게 배분된 사회를 향해 가는 구조적 변동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치관은 낙관적인 후기산업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의식구조인 것이다.

다) 프로그램

세계적으로 볼 때 과잉 부유사회들이 출현하면서 이들 사회에 과잉소비, 인간의 생활목적 상실, 육체적 노동부족, 영양의 과대와 같은 과잉 부유에 기초한 정신적, 신체적인 유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다른 한편 세계에서는 매년 1,200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수억의 인구가 절망적인 빈곤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역시 이러한 양분화는 마찬가지로 현상으로 외제품 선호, 고급 내구재의 소비, 호화혼수, 주택차장, 호화로운 외국여행, 고액과외, 분수에 넘

치는 여가활동 등 의·식·주 전반에 걸친 과소비가 일부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배고픔에 굶주리는 사람, 병들고 가난한 사람, 최악의 주거상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틀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생활환경에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치관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반의 이론이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한 개인의 가치관의 특징은 이미 어렸을 때에 부모나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화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인데 이것을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고 학습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학교에서 어떤 덕목을 가르치려 한다면 사회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는 학교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지만, 반대로 사회현실이 그런 덕목을 강조하고 실천이 되고 있을 경우에는 학교가 굳이 캐내어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히 형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미래 사회에 살 사람들이므로 미래사회에서 지키고 이용할 가치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다면 어떤 가치를 주입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훈련만을 시키자는 견해도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가치관 경험적 심리적 가치감정의 문제로서 이 가치감정은 인성의 발달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인성교육을 통하여 도덕이나 윤리교육을 학생의 심신발달단계에 맞추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한 사람의 가치관을 학습의 결과로 보고 그것이 가정, 학교, 사회 어디에서 배웠던 간에 가치관을 배운 것이므로 교육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교육에서 정신자세, 심성, 인격 등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다만 가치관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기능은 학생이 어떤 가치를 신봉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한 분석, 종합, 추리, 탐구의 의사결정 등을 포함하는 가치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즉, 가치과정은 개인이 여러 가지 상이한 가치체계에 직면했을 경우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며 갈등에 처해서 어떻게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의사결정 경험을 시켜야 하는데 이때 개인적인 의사결정 경험과 집단적인 의사결정 경험을 시키는 것이 유용하며 학생들은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을 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다가치 체제의 복잡하고 분화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가치항목을 뽑아 본다면 생활의 합리화, 인간존중, 정서적 안정, 인성개발, 근검절약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가치항목들은 행위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영속성이 있어야 하고 생활양식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식이나 기능의 단순한 습득에서 끝나게 하지 않고 지식이나 기능을 생활과제에 따라 창조적,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능력이나 태도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가치학습을 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체험학습을 시키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중·고등학교 과정의 가정교과의 실습단원과 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사실 현재 가정교과의 실습단원은 입시대비 위주의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값싼 기성복을 사 입으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익인데, 무엇 때문에 교과과정에 옷만들기, 바느질 등을 넣어서 고생을 시키는가 하는 것은 좁은 시각에서 본 견해이다. 옷만들기는 하나의 학습소재이고 그 학습과정에서 계획성, 창의성, 응용력, 실천력 등을 길러 주고 옷 한 벌이 완성되기까지의 힘든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의복을 소중하게 다루려는 태도와 인내심 등 인간형성과 관계가 깊은 가치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생활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은 개인과 가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획일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이나 가족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생활양식이나 소비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의 생활철학의 규범이 유교적 윤리 도덕관을 바탕으로 철저한 절제 절약사상으로 생활화하던 것이 산업사회로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생활의식이 점차 변화되어 소비와 사용에 대한 태도

가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낭비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우리 나라의 쓰레기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쓰레기 속에 음식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로 높아가고 있다.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989년 각 가정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78,000톤인데, 이중 음식잔유물이 19,790톤으로 전체 쓰레기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이다(한국자원재생공사, 1989). 이는 미국의 평균 음식잔유물 22.6%를 능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를 줄입시다’, 내지는 ‘환경을 보호합시다’와 같은 구호적인 캠페인은 무의미하게 된다. 즉, 가치는 인위적이기는 하나 법적인 규제가 아니고 인간의 자율에 근거한 것이므로 자발적인 행위로 스스로의 생활에서 그 규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개성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이 무엇을 하든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며,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떤 물질의 비교적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맺는 말

건전한 사회윤리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물질 중심주의의 가치가 인간 가치지향으로, 수단 중심주의가 내재적 가치지향으로, 임시주의 가치가 미래 지향적 가치로 전화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을 일상적인 삶에 연결시켜서 태도의 형성과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치는 인위적이기는 하나 법적인 규제가 아니고 인간의 자율에 근거한 것이므로 자발적인 행위로 스스로의 생활에서 그 규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발적인 행위를 배울 수 있는 도덕적 훈련과 생활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는 곳은 일차적으로 가정이지만, 최근의 여러 가지 가족의 구조변화는 이러한 역할을 가족이 담당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가치관정립활동’이라는 연구주제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관을 점검해 보고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미래 문화의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 편 (1992),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비봉출판사.
- 고병석 (1992), 「가치관연구」, 나남.
- 공성진 (1991), 「도시의 삶과 새로운 시민의식-21세기의 도시와 사회」, 미래학 총서 3, 조선일보사 출판부.
- 김경동 (1982), “조직화된 삶의 인간화,” 「미래를 묻는다」, 한국미래학회.
- 김대환 (1989), 「한국사회 어디로 - 전통과 현대의 갈림길에서」, 매일경제신문사.
- 김동현 (1981), “의식개혁운동의 방향과 전략,” 「계간 현대사회」, 겨울호.
- 김문조 (1987), “과소비의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학, 제 21집.
- 김승환 (1981), “의식개혁과 평생교육,” 「계간 현대사회」, 가을호.
- 김태길 (1990), “현대한국의 사회윤리,” 아산사회복지재단 심포지움 발표논문.
- 민경식 (1981), “한국인의 법의식과 현대화 과제,” 「계간 현대사회」, 겨울호.
- 박순영 (1982), “국민의식형성과정과 저해요인,” 「계간 현대사회」, 여름호.
- 박순영 (1985), “남을 인정하면서 나를 지켜가야,” 「2000년」.
- 복거일 (1989), “한국사회를 어떻게 볼까,” 「2000년」.
- 손봉호 (1991), “가정학과 윤리,”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신상옥 (1991), “의생활에 관한 가치관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규은 (1986), “이 사회의 윤리지수부터 높여야 한다,” 「2000년」.
- 이기춘 외 공저 (1993), 「신세대소비자의 신호주거욕구와 여가시설 및 탁아시설에 대한 수요」, 서울대학교 소비자 이동학과, 연구보고서.
- 이기춘 (1991), “과소비 문제와 소비윤리,”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
- 이부영·차재호·황필호 (1984), 「한국인의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21세기위원회 (1992), 「2020년의 한국과 세계」, 동아일보사 출판부.
- 임규찬 (1986), “과시와 낭비의 잔치판, 이대로 좋은가,” 「2000년」.
- 조 순 (1975), “경제발전의 삶과 질,” 「미래를 묻는다(4)」, 한국미래학회.
- 조 순 (1991), “민족사적 대전환기에서의 우리의 과제,” 「인촌 김성수 탄신 백주년 기념논문집」.

- 조 은 (1983), “산업화와 신가부장제—여성의 적응과 갈등,” 『계간 현대사회』, 가을호.
- 조은정 (1993), 신세대소비자의 주거가치와 주거선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 형 (1982), “현대사회와 가족,” 『미래를 묻는다(7)』, 한국미래학회.
- 최 협 (1986), “한국사회 공동체 공동체 이념,” 『한국사회학』, 20(4) : 15-33.
- 한국자원재생공사 (1989), 『자원화 편람』.
- 한완상 (1992), “과연 시민운동은 개량주의적 선택인가,” 『경제정의』, 7, 8 : 138-149.
- 한정호 (1992), 『한국인의 경제가치관 유형분석』, 국민경제연구소.
- 현대사회연구소 (1982), 『2000년대를 향한 한국인상』.
- Stampfl, R. W. (1982), “Rhythms of Change : Societal Movements Consumer Education and Meta Issues,” ACCI Proceedings.

2) 이해*

가. 들어가는 말 : 연구의 필요성

최근 청소년들의 문제는 기성세대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예컨대 장교의 탈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가치체계로는 신세대의 행동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장교가 청소년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청소년기를 갓 지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 상태를 통해 우리는 청소년기의 가치관 형성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시대에서나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처럼 청소년들의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당혹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드물 것이다.

우리는 최근에 일어난 박아무개의 부모 살해사건, ‘지존파’ 사건을 보면서 기존의 사회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황하고 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가끔 볼 수 있었던 일이고, 자신의 이

*박승희(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익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용인되지는 않았지만 가끔 일어나던 일이다. 그러나 부모를 죽이고 불특정인들을 증오심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일은 처음 벌어지는 일들이다. ‘도대체 세상이 어찌될 것인가?’ 이런 원망과 탄성이 여기 저기서 들린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 왔던 효와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부유층의 자녀들은 그들 나름대로, 빈곤층의 아이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가치관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고 아우성이다.

물론 이러한 특수한 범죄 사실만 가지고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사회적인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행위가 억제됨이 없이 분출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전과는 달리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소년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범죄를 저지른 특수한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청소년 일반의 가치관 교육이 흔들리고 있으며, ‘나와 우리에 대한 이해’가 대다수 청소년들 사이에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청소년들 일반의 공동체적인 가치관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가치관도 급격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혼동 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만약 어른들의 공동체적인 가치관이 살아 있다면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은 일상의 교육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의 공동체적인 가치관도 이미 약화되어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가치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가정, 사회, 국가, 민족과 같은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부재한 가운데 가속화되는 청소년들의 가치혼란은 이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장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장의 현실적인 사회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나와 우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 청소년 가치 혼란의 사회구조적인 원인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은 사회전반의 가치관 혼란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혼란의 구조적 원인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입시교육이 청소년의 가치 혼란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가) 급격한 사회변동

196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전체인구의 72%가 농촌에 살면서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고, 1961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행되면서 크고 작은 공장이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 세워지고, 농촌지역에도 큰 공장이 세워지면서 그 곳에 관련 산업과 상가가 들어서고 사람이 모여들어 도시로 변하였다. 수많은 농민들은 가난한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모여들어 노동자가 되고 상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의 인구는 줄고 도시의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났다.

우리 나라의 도시인구의 비율은 1991년에 75%로 증가했다. 반면 농촌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어 1992년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하다. 1961년 국민 총생산에서 농업 등의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8%이고 광공업 및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8%였으나 1991년에는 1차 산업은 8%로 줄고 광공업 및 건설업은 43%로 늘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급속하게 변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그 동안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여 1960년대 초 100달러도 채 안되던 1인당 국민 소득은 1990년대 후반에는 1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과 주택호수, 상수도 보급률, 전기 보급률, 전화, TV, 자동차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의료기술의 발달, 양약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대기업과 거대 조직들이 탄생했다.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출산율은 낮아져 평균 가족수는 줄어들었다. 지난 30여년 동안의 이런 변화는 서구에서 1백년 혹은 2백년에 걸쳐 진행된 변화만큼 빠른 것이었다.

이런 변화는 주로 우리들의 물질적인 생활조건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급속한 물질문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알맞는 가치관이나 윤리규범

은 정착되지 않았다. 물질적 생활 조건이 변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윤리관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면서도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여 변화된 생활방식에 알맞는 윤리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부모와 자식이 함께 농사를 짓고 사는 농경사회에서는 부모는 어른으로 공경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어쩔 수 없이 변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전통적 윤리인 효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아직 적절한 윤리관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다.

이런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부조화로 인한 가치 혼란은 교통질서의 경우에서도 잘 드러난다. 1980년대부터 우리사회에 자가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여기에 적합한 운전문화는 아직 정착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상품시장 경제 중심의 산업사회로 급속하게 변하면서 화폐의 중요성이 커졌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의 농촌사회에서는 의식주에 쓰이는 생필품의 많은 부분을 자급자족했다. 식량과 찬거리는 물론 의복의 일부도 자급하였으며, 집을 짓거나 수선하는 일도 집주인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거의 모든 생필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쓰기 위하여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즉 상품)을 만든다. 이런 상품시장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반면,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듯이 보인다. 우리 사회에는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버릇, ‘물질주의’가 확산되었다.

돈과 물질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물질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과거의 오랜 전통 속에서 형성된 미풍양속은 사라졌다. 예컨대 돈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편협한 사고 속에서 남의 도움을 받지도 남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물질주의로 인해 기존의 가치관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에 알맞는 가치관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는 ‘가치관의 혼란’ 혹은 ‘무규범(아노미)’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나) 문화의 단절

급속한 사회변동은 급속한 문화변동을 수반하였다. 그러나 이 문화변동은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전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문화가 단절되는 것과 함께 이루어졌다. 예컨대 현재의 우리 나라 사회과학이 조선 시대의 발전된 학문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대부분 서양의 사회과학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 단절은 예술, 가치관 등 문화 전반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문화의 단절은 문화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문화는 과도기에 있다. 전통문화는 사라져 가고 우리에게 알맞는 새로운 문화는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한 문화 혼란을 겪고 있다. 예컨대 부모를 모시는 것은 전통문화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큰 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실제로 많은 큰 아들이 노부모를 모시지 않으려 한다. 이로 인해 노인들이 갈 곳 없이 방황하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전통문화는 무너지고 우리의 실정에 알맞는 새로운 문화는 정착되지 않은 채 심한 문화혼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그러면 왜 우리의 문화는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변동하지 못하고 심한 전통단절과 혼란을 겪고 있는가?

첫째 그 원인을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찾을 수도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훼손되었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폈다. 심지어 우리의 말과 글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미 많이 파괴되어 버렸던 우리의 전통문화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황량해 지고, 미군정 이후 미국의 문화가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전통문화의 단절은 더욱 심해졌다.

둘째 ‘근대화 정책’도 문화 단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 정책을 비롯한 ‘근대화 정책’은 서구의 사회를 이상 목표로 삼고 이루어 졌다. 여기서 근대화란 곧 서구를 모방하는 것으로서 ‘서구화’였다. 이

러한 사고 체계 속에는 근대문화와 서구문화는 같은 것으로서 좋은 것이며, 우리 문화와 전통문화는 역시 같은 것으로 나쁜 것이라는 2분법적인 사고가 깔려 있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것은 빨리 버리고 서구의 것을 빨리 도입하는 것을 진보요 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나칠 정도로 무시하여 왔다. 예컨대 한의학을 ‘비과학’으로 취급하였고, 각 마을의 대동제나 굿을 축제로 이해하지 않고 ‘미신’으로 비하하였으며, 우리의 전통 음악을 ‘국악’이라 부르고 서양 음악을 ‘음악’이라 불렀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고유문화 속에 살아 숨쉬는 좋은 점들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 채, 외국의 문화만을 도입하는데 급급하여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문화의 혼란의 과도기를 겪고 있다.

다) 공동체의 해체

농촌이 해체되면서 농촌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해체되었다. 이웃관계와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동의 정신은 약화된 반면 새로 형성된 도시에서는 아직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

도시에서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은 그 동안 도시가 지속적으로 팽창하면서 많은 인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끈끈한 인간 관계가 형성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형성을 더디게 하는 다른 요인이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상품경제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상품 경제가 발달하면서 많은 인간관계가 상품과 화폐의 거래 관계로 변화되어 정을 나누는 인간적인 관계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군중 속의 고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공동체의 해체는 결국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는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즉 공동체의 해체는 ‘나와 우리에게 대한 이해’의 기회를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

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급격한 사회변동에서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부적합, 상품경제의 발달로 인한 물질주의의 확산, 전통문화의 단절, 공동체의 해체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공동체인 사회,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가치관의 혼란 상태가 초래되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의 가치관 혼란은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무엇이 자신과 사회에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사고해보기도 전에 입시 경쟁에 매몰되어 수단적인 방법의 획득만을 고민하게 된다. 이것이 곧 사색의 빈곤을 야기시키며, 청소년들은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파악하는 태도를 암묵적으로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다. 연구방법에 대한 제언

이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및 국가적인 측면의 가치관을 정립시키는데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험적인 사실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아니라 일종의 대안을 찾는 연구이자, 실천 지침을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매우 현실적인 필요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당위적인 주장만 나열하는 비현실적인 연구가 되기 쉽다.

이 연구가 이런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 현실에서 쓸모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곧바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대안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평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찾아보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홍사단을 비롯한 사회단체에서는 이미 청소년 가치관 확립에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문화체육부에서는 1990년부터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271개 시군구에서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어울마당은 시·군·구민회관, 청소년회관, 놀이마당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실시하기도 한다. 기본 프로그램은 노래와 춤마당, 민속마당, 미래만들기 마당, 개척과 모험마당, 창작과 상상마당 등이다. 이 밖에도 문화

체육부에서는 청소년 우리 얼 익히기사업을 하고 있다(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1993).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층 수준높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를 위해서 피상적인 답만을 요구하는 설문지 기법 이외에도 참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자와 심층면접이 이루어야 할 것이며, 참여관찰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에는 학부모와 교사의 영향이 크므로 이들과의 면접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현장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실용적이고 대안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라. 현실성있는 프로그램 개발

우리 사회에서 대안적인 연구를 할 경우는 대부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자체내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도 사고의 실마리를 잡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는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비록 우리 자체 내에 기존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일천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도 생산적인 연구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세울 때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 이외에도 창조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작업은 결국 이상적인 대안을 상상적인 실험을 통해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던 상상적인 실험을 통해 창조적인 것을 구상할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우리 나라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철저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입시의 중압감을 느끼지 않는 독일의 청소년에게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은 입시의 중압감에 찌든 우리 나라 청소년들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을 것이다. 또한 교육효과가 아무리 탁월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입시에 쫓기는 청소년들을 그 프로그램 안에 참여시킬 수 없다면 그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실제로 사회단체에서 청소년의 가치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동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청소년들 자신은 참여하고 싶어하지만 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의 만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합격하면 대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실무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현실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하루 아침에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 자체가 철저히 고려되는 가운데 프로그램의 개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연구계획서의 내용 보충

‘나와 우리에 대한 이해’는 곧 공동체적인 가치관의 정립을 의미한다. 그러면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공동체적인 연대가 해체되었고 또한 요즘 청소년들은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성이 부족한 편이다. 다시 말해서 요즘 청소년들은 집합적인 상태의 인간들 간의 호상작용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공동체적인 심성과 가치관을 함양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집합적인 호상작용(interaction)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할 바꿔보기, 독서나 영화보기, 단군신화 재현과 같은 프로그램은 집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물론 독서, 영화감상의 경우 책의 내용과 영화의 내용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고, 역할 바꿔보기나 단군신화 재현활동의 경우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부적합하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집합

적인 체험을 통한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게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공동체적인 체험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집단적으로 맘을 흘리거나 어려운 문제를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해결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축제적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을 창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 청소년을 위하여 이웃 사람들과 교류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예컨대 부모와 함께 연립주택 위·아래층 식구가 참여하는 놀이를 구상하여 주관해 보게 하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일종의 실험집단에서만 운영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공동체적 의식을 키우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3) 실천*

가. 들어가는 말 : 가치관 정립의 모순적 전제

사회를 놀라게 할 만한 혐기적인 범죄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은 흔히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이 몰락하여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하루 아침에 몰락하여 세상이 뒤집힐 듯 열을 올리며, 나름대로의 원인 분석을 하고 있다. 근래에 지존과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가치관의 몰락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범죄를 다루는 전문가나 일반인들의 중론이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했다는 점에서는 특정 가치관이 몰락하였을 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옳고 선한 것에 대한 가치와 규범이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하나의 전제조건이 있다. 가치관의 양면성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한쪽만을 선택한 인식의 무의식적 편견을 전제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이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계획서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치는 개인이나 집단의 바람직한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이며

*장준오(성균관대학교 사회학강사)

가치관은 행동의 목표와 선택에 영향을 주는 기준인 것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선”하고 “옳은 것”에 대한 가치판단만이 아니라, “그르고 악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개인이나 집단 성원에 의해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진다면 행동의 가치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가치관의 정의의 두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가치관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말속에는 오직 “옳은 것”이라는 의미만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가치관이 정립된 사회에서는 옳고 선한 일만을 한다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중은 사회의 가치관의 몰락을 운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가치관의 몰락이라는 가정에 함정이 있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만 행하며 살아온 사회가 있을까? 역으로 생각하면, “옳은 것만 행하는 사회”는 인간의 확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사회로 가기 쉬운데, 과연 우리가 사는 사회가 가치의 확일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이 대중의 관심을 끌어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가치관의 몰락이라는 말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가치관의 몰락이라는 말을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직업이 전문화, 세분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치의 개념도 다양해지고 가치척도의 기준도 다양해질 것이다. 이런 사회에 사는 그 구성원의 가치를 확일화하여 객체를 분석하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일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향해 사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방법일 뿐이다.

급변하고 다양한 가치를 가진,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가치관이 몰락한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다양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지존파의 일당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행한 행위는 그들 사회에서는 “선”한 일이며 “옳은 일”일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옳은 것”이라는 가치관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악한 것”이라는 가치관과 동일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가치관정립활동은 가치관의 확일성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중점을 둔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나. 가치관정립 프로그램의 요소

가치관정립에 관한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지켜야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확실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다양성 안에서 전체와의 균형을 깨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그 안의 구성원인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다양성을 인식케 하는 동시에 그들이 그 사회의 일부 구성원으로 사회를 일탈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할 것이다. 둘째, Richard Flacks가 말하는 청소년의 특성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모험적이고 실험적이며 행동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새롭고 진취적이며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하겠다. 과거와 같이 윗사람이 시키면 마지못해 행하는 그런 수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청소년들의 감성적 쾌감과 육체적 편안함만을 강조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인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안되는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소한,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거시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할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나 가정이라는 공동집합체의 규범과 규율을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가능한 프로그램이 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보면, 흔히 부딪치기 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들의 개인주의적 특성이 강조된 나머지, 한 프로그램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개념(그것이 잘된 일이던 잘못된 일이던 간에)이 도전받게 되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당치 혹은 옳지 않은 수법을 쓴다는 것이다. Gresham Sykes와 David Matza는 이것을 중화의 기술(techniques of neutralization)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 프로그램의 성패는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그 프로그램을 따라주는가에 달려있는데, 일부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들의 합리성 내지는 정당화에 근거한 반발은 프로그램의 성공에 치명적이다. 이런 청소년들은 대체로 그들만의 판단기준으로 행동한

다. 이런 청소년들은 그들의 행동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판단기준이 정당하고 행동에 대한 피해자가 없다는 인식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패로 유도하기 쉽다. 이런 부류의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실패의 요인을 자신들의 무성의와 비협조로 돌리지 않고, 프로그램의 비효율성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주의 사항들은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이 선정되어야 할 것인가도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다. 프로그램의 대상과 종류

“나를 이기고 우리를 찾는 노력”으로써의 프로그램의 대상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상적인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일반적인 프로그램. 둘째, 청소년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한 가정 또는 비행청소년이 있는 가정. 이를 더 구체화하면, “폭력적인 가정”이나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가정의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결손가정”과 결손가정은 아니나 경제적으로나 가족공동체 측면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넷째, 불량 청소년을 친구로 둔 비행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다.

가) 정상적인 가정의 청소년 전체를 위한 일반적인 프로그램

정상적인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이 논문은 몇 가지의 예를 들고 있다. 첫째가 평생계획표 작성하기이다. 이는 나를 이기고 우리를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같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나”를 이겨보려는 방법 같기는 하나, 우리를 찾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평생계획표 그 자체가 작성자 개인을 위한 것이지 “우리”라는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평생계획표가 “우리”라는 개념아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여러 청소년들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기에는 “우리 평생 계획표”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예상된다.

두번째 프로그램의 예는 이성교제, 흡연, 가출 등의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

게임(simulation game)이다. 이는 첫번째 프로그램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이성애에 대해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이성교제에 대한 프로그램은 이를 운용하는 지도자의 체계적인 훈련과 전문성 있고 직업에 대해 열성적인 젊은 초빙강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지도자의 체계적인 훈련이란 첫째,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지도자의 선발이다. 인성검사를 통해 다루기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제 몸처럼 나눌 수 있는 지도자를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도덕적으로 청소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지도자를 선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성교제 시뮬레이션 게임은 흥미 위주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선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선발된 지도자는 교수나 사회적명인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도자는 그들이 발표할 것을 사전에 자문단앞에서 발표하여, 첨가하고 삭제해야 할 것들에 대해 충고를 받아들여야 하며, 자문가들은 지도자가 청소년 앞에서 발표한 내용을 비디오나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감시 통제해야 한다. 셋째, 많은 청소년의 비행에서 보듯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방심이나 무관심은 가정의 정상적인 대화통로를 막음으로써 비행의 유발요인으로 지적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부모님의 적극적인 참가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은 물론, 청소년 비행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프로그램의 예는 아름다운 우리말 조사하기이다. 본 논자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우리를 찾는 노력”과 연관되어 있는 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

위에서 본 세 가지 프로그램들은 목적과 의도에 있어서 진취적이나 그 실행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특정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프로그램의 대상을 선정하는가에 프로그램의 성패가 달려있다. 두번째, 정상적인 가정의 문제점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을 때,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가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한다. 세번째, 정

상적인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청소년들이 얼마만큼의 청소년 비행을 저질렀나를 연구한 결과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결과에 대한 성패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프로그램이 없다면, 이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거두어 청소년들의 가치확립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나) 가정에 적응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의 가정이 폭력적인 가정,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가정의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결손가정 (divorced family)과 결손가정은 아니나 경제적이나 가족 공동체적 측면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다룰 것이다.

(가) 폭력가정배경의 청소년비행 (juvenile delinquents from violent family)

범죄학의 일반적인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은 그들의 행동을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부모로부터 배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가치판단이나 행동을 그들이 보고 배운 것중에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어린 청소년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제재할 수 있는 부모의 가치판단이나 행동은 어린 청소년들로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청소년들이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을 보고 자란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환경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을 결정 지워 주는 가치관으로 자랄 것이다. 가정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토론하고 그 결과의 타협점을 대화로써 찾는 가정의 청소년들로서는 폭력행위가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폭력가정에 대한 예는 세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미국의 국립 청소년 및 가정법원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1990)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 남자가 자기 아내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그의 할머니를 때린

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주일 후, 다섯살 난 그의 아들이 유아원에서 다른 어린아이를 장난감 망치로 때려 아이의 어머니가 유아원 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어린아이들이 가정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장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문들은 수 없이 많다.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가정교육(Teaching-Family)”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의 일반적인 생활방식과 사랑을 배우도록, 개인의 가치관 정립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가치관을 배우게 된다.

(나) “가족”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청소년비행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가족 내에서 유사한 상황을 접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많은 접촉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의 부모 한 사람이나 모두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가족과 얘기할 시간도 형제자매시간, 부자시간, 그리고 모녀시간 등과 같은 가족관계를 배울 기회도 적게 된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는 “위탁부모가정(foster family)”과 같은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다) 학교에 적응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상담(Educational Counseling)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미국에서 흔히 쓰이는 집중감독 집행유예(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 프로그램중 교육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라) 불량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에 상관되는 프로그램은 수없이 많다. 그 중 하나인 시카고지역연구의 경우, 청소년들은 민주적 가치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배우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 매니저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이 합의를 통해 어떻게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운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소일할 수 있느냐와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배운다.

3. 기존 유사활동 현황조사

1) 청소년단체 현황

조사기간 : 1994년 7월 29일 -- 1994년 9월 24일

조사방법 : 전화문의 및 방문

기관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대한가족계획협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146 ☎ 634-7970	가치관 경매 ▶ 필요하다고 생각 될 때마다 실시 (1년에 4-5회)	· 청소년들을 6명으로 된 집단으로 구성함 · 용지에다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20가지 정도 정리하여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제시함 · 예를들면, 우정, 명예, 건강, 사랑, 신앙 등 · 각 구성원들에게 100만원 정도의 가짜 돈을 준 후 각 가치들에 돈을 투자하게 함 · 각 가치들은 경매에 부쳐지고, 결국 각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가장 비싸게 준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한 가지씩 소유하게 됨 · 가치 경매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느낀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음
대한 YWCA 연합회 ☎ 서울시 중구 명동 1-3 ☎ 774-9702	대화 프로그램 ▶ 94년 실시	· 두사람이 한 조씩 짝을 이루어 손을 마주잡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눔 -나의 장점 3가지, 나의 단점 3가지 -내가 앞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3가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3가지 ·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짝을 교대

기 관 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 전체를 소그룹으로 나누어(5-10명) “우리가 서로 친해지려면”이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 발표 · 브레인 스토밍 일명 팝콘식 토의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서로 비판없이 돌아가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말하고 한 사람은 적어 이를 나중에 발표—이때 기발하거나 매우 공감적인 의견을 낸 사람을 선발하여 간단히 시상해도 좋음 · 클럽임원진은 여기서 발표된 내용을 잘 정선하여 추후 프로그램으로 활용해도 좋음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9-1 ☎ 735-8165	한국 청소년 약물남 용 예방 캠페인 ▶90년부터 매년 2-5회 실시	·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홍보 및 계몽 캠페인 · 기성세대에게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자각시켜 주위의 청소년들에게 적극 교육, 선도할 수 있는 기회제공(전단지 배포) ·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사물놀이팀 초청 공연 및 가장행렬)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 분위기 조성
	청소년 윤리회복 실천 대회 ▶90년부터 매년 12 월 중 실시	· 청소년들에게 윤리관을 제정립 시켜 주어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도록 함 · 청소년 건전육성에 범국민적인 참여를 권장 · 효성으로써 부모를 섬기고, 정성을 다하여 스승을 공경하도록 함 · 믿음으로써 친구를 사귀고 사랑으로써 이웃을 보살피도록 함

기 관 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 온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모든 물자를 아끼도록 함
	하계 청소년 극기수 연대회 ▶매년 여름 방학	· 공작활동 : 청소년들끼리 협동작업을 통해 이기심을 버리고 인내심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 집단 성취감을 얻게 되고, 청소년들이 내가 하는 것도 좋지만 타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신을 갖게 함 · 연상화 그리기 : 점이나 원을 주고 연상되는 그림을 그리는 활동 · 3분 연설 : 3분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함 · 나의 생애설계 · 별칭 짓기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 서울시 강서구 화곡 6동 1093 ☎ 690-3620	훈련활동 ▶매년 여름과 겨울 각 1회씩 3박4일 동안 실시	· 주요 대상이 학생청소년이므로 방학 기간중에 실시 · 수련활동 기간중의 정신훈련을 통해 절대정직, 절대순결, 절대무사, 절대사랑이라는 4가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도덕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서울시 중구 신당 6동 292-61 ☎ 253-3811	진아(眞我) 탐색 ▶ 93년 2회 실시	·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으로서 매회 2시간씩 1주에 1회, 총 7회로 구성 · 1회(나는 어떤 사람인가?) : 자신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고향에 어린 추억, 가족상황, 자신의 성격 등에 관해 생각해 보는 시간

기 관 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 2회(삶의 흐름) : 과거의 삶에서 행복했던 때와 불행했던 때를 흐름곡선에 적어보고 미래의 삶의 흐름을 생각해 보는 시간 · 3회(나의 장점은?) : 자신의 장점 5가지를 기록하고 그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 · 4회(잃어버린 친구) : 마음 속에 내재하고 있으나 상황이 적절하지 않아 발견하지 못하고 잊혀져 왔던 모습을 생각해 보는 시간 · 5회(힘든 이야기) : 자신의 경험 중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억울했던 것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 · 6회(있는 그대로) : 5회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유익했던 점에 관해 생각해 보는 시간 · 7회(나의 하고픈) : 이상의 활동을 하면서 얻었거나 지었던 별칭 및 애칭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내재된 자신의 모습을 살릴 수 있도록 다짐해 보는 시간
천운 청소년육성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2 삼희빌딩 7-202 ☎ 216-1674	진로탐색 프로그램 ▶ 93년 가을 1회 실시	·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성,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꾸밈으로써 개인의 조화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 · 직업세계에 대해 간단한 설명, 자신에 대해 알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글, 명언들 삽입, 자신에게 맞는 적

기 관 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한국청소년마을 ☞ 대전시 중구 문창동 30-10 ☎ (042)253-1328	심성개발수련 ▶매년실시	업은 어떤 것인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검사지 · 적극성 기르기 : 부끄러움을 버리고 몸짓(춤)을 통해 자기자신을 표현 · 긍정적 사고 : 긍정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습관 수정(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예 제탓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등) · 패기 : 함성과 구호, 조가등을 반복 하여 외치며 자신 스스로 패기를 갖고 남앞에서 자신있는 자기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함 · 마음 다루기 : 참선-불교에서 행해지는 “도”를 닦는 과정을 응용한 방법으로 끝은 자세로 앉아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는 마음을 갖게 하는 방법 · 협동심 : 한마음 관과 협동줄넘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조별 팀워 조성 · 이심전심 : 서로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간의 우정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과정
한국청소년지도자 협회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9 뉴파고다빌딩 201 ☎ 742-9387	심성계발훈련 ▶매년 4회 실시	· 별칭 짓기 · 신뢰감 형성 및 자기이해 : 세족게임-남의 발 씻어주기, 명찰게임-이름을 쓰고 자기 특징을 쓴 후에 감춘 후 타인이 맞춤 · 의사소통 프로그램 · 자기주장 : -라면 게임(내가 만약 옷이 없다면)

기 관 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 감정이입 : 빈 의자 게임(타인에게 비친 자화상, 2인 1조로 하여 10분 간 3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자신을 말하는 것) · 자기노출 : 자기고민거리를 익명으로 쓴 후 지도자에게 제출하여 돌려가며 읽음 · 자기발견 : 자기 장단점 이야기하기 · 진로지도 : 과거나 현재, 미래의 문제를 이야기 해보는 시간(1년후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기) · 자기인생설계 : 죽었을 때 조사가 어떻게 쓰여지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부모님전상서) · 프로그램 마무리

1994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발간한 안내책자에 등록된 34개의 회원 단체와 유관기관의 가치관에 관련된 활동을 조사해본 결과 여덟개 단체에서 10가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에서는 3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7단체에서는 1가지에 국한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방학중에는 수련장에서의 단체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학기 중에는 요구에 의해서 비정기적으로 활동이 실시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참여가 바탕이 되는 단체활동이 주종으로 되어있다.

2) 한국청소년개발원수련광장

주제 : 함께 하는 삶

기간 및 장소 : 1994년 8월 8일 부터 8월 13일까지 (경기도 이천 소재 덕평 수련원)

인원 : 진행요원 13명, 수련참가자 120명 (남녀 고등학생 각 60명)

내용 : 5박6일의 전 과정에서 한시간씩 두번에 걸친 가치탐색활동이 있었다. 둘째날(9일)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자신에 대한 성찰시간이 있었고 넷째날(11일)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바람직한 가치함양에 대한 토의활동이 있었다. 물론 전 수련광장활동이 바른 가치관 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 활동에서는 객관적인 자아 발견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에 대한 설계를 꾀하는 구체적인 참여활동이었다.

청소련 수련광장 활동 일정표

시 간	8일(월)	9일(화)	10일(수)	11일(목)	12일(금)	13일(토)	
06:30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상, 청소, 아침운동)					
07:30		아 침 식 사					
08:30		선택 활동 1					정리의 시간
		1. 시민생활활동 2. 정신건강활동					
10:00		선택 활동 2					다짐과 나눔의 시간
		1. 사 물 놀 이 2. 탈 춤 3. 전 통 공 예 4. 전 통 무 예					
11:00							달함의 시간
12:00		점 심 식 사					
13:00			푸른 숲에서	푸른 하늘에서	도 예 교 실	환경파수꾼2 (환경교실)	집을 향하여
14:00		등록	등 산 -환경시쓰기 -자연관찰	패러글라이딩 실습	1. 도예미술관 관람 2. 도예실습 -특강 -도자기 만들기	1. 지역환경 실태조사 2. 발표 및 토의	
15:00		출발					
16:00			물과 친해지기				
		도착 및 정리	수 영 -물놀이				
		열림의 시간					
17:00		한마음 다지기 (조별모임)					
18:00	휴 식						
	저 녁 식 사						
19:00	노래와 함께	노래와 함께	노래와 함께	이웃을 위하여2	준비시간		
20:00	하나됨을 위하여 -소개 시간 -공동체 놀이	이웃을 위하여1 -장애체험활동 가치탐색활동1 “나는 누구인가”	환경파수꾼1 (환경교실) -환경올림픽 -환경특강	-장애우와 함께 하려면 가치탐색활동2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젊음의 한마당		
21:00					1부:청소년 가요제 2부:장기자랑 3부:“타오르는 불과 함께 하나로” -Campfire		
22:00	휴 식						
	하루를 정리하면서						
23:00	취 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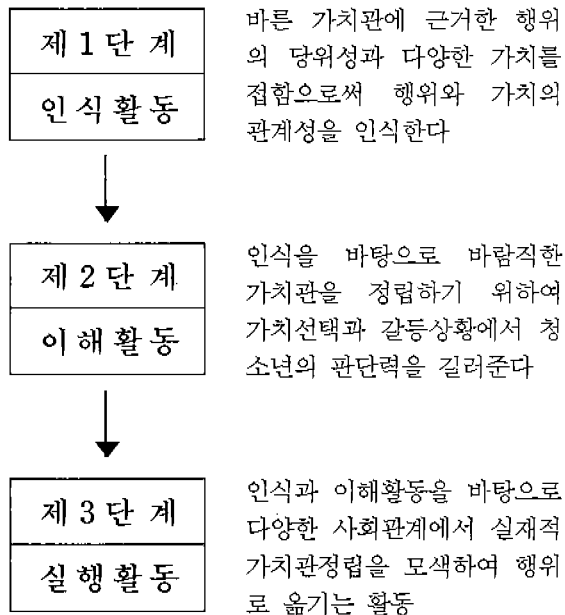
Ⅲ. 가치관정립활동 내용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의미의 가치관 정립은 여러 가지 방향 내지는 범주화가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접하게 되는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 가정 및 학교생활, 사회 및 국가 그리고 인생관 등의 구체적인 범주에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의 구조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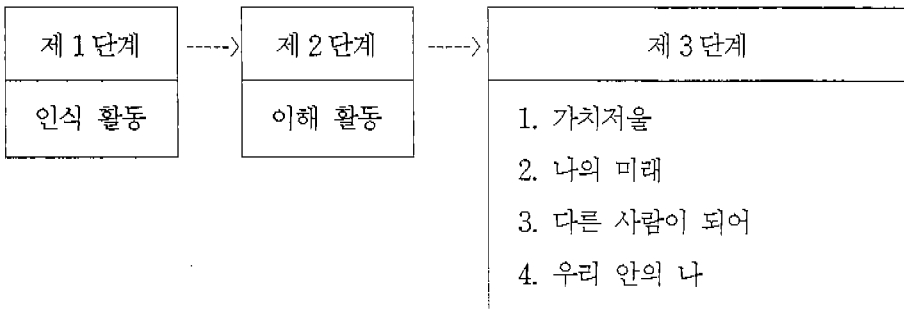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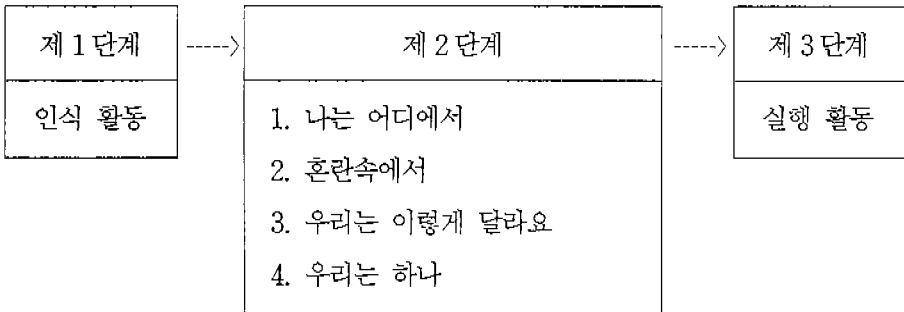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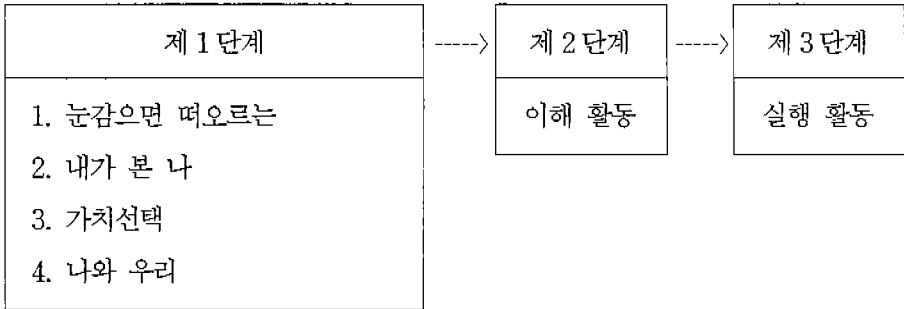
수련거리의 내용은 계속적인 자료의 수집과 지문을 바탕으로 하고, 또한 1994년 9월 29일에 개발원 회의실에서의 중간보고 발표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마지막 수정을 거쳐서 확정되었다.

1. 프로그램 구성도

가치관정립활동
내용조직표



각 단계별
활동전개



2. 인식활동: 다양한 가치의 인식

이 단원에서 피하는 목적은 청소년의 가치관 혼란과 갈등의 유도이다. 청소년이 갖게 되는 입시교육 내지 성공교육하의 단순한 가치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체와 구별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큰 요인으로 이해된다. 이 활동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람마다 틀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의사를 표현하거나 결정할 때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1) 눈감으면 떠오르는

청소년들은 그들 생활의 특성상 단순 반복적이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권장하지 않는 상황이다. 가치관정립을 위하여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하는 것이 가치관정립활동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명상활동을 통하여 심신의 안정과 참된 가치를 찾는 것이 이 단위활동의 주요 목표이다. 다양한 명상법의 인식과 실행을 함으로써 자신을 다스리는 기초를 길러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토론과 발표를 통하여 다양한 직·간접적인 인식을 구할 수 있다.

2) 내가 본 나

가치관정립활동에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은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를 파악하고 실천으로 옮겨가기 위한 도약대가 된다.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달리 자기 자신을 글로 나타내봄으로써 인식하지 못하였던 가치의 전도 내지는 모순 같은 것을 인식함으로써 定立뿐만이 아니라 正立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써봄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솔직한 심정에서 청소년 자신의 가치에 바

당한 행위의 현실적인 측면과 이상적인 측면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 보다 포괄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여 눈을 돌려서 주변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안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한다.

3) 가치선택

가치선택은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매순간 접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접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혼란과 갈등만을 유발하는 역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판단능력을 길러주고 융통성을 길러주는 비옥한 토양이 되는 것이다. 학생이나 직장인으로서의 가치나 행위에 국한된 판단보다는 한 사회의 일원으로 개인적 가치의 사회적 특징을 일깨울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다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영상자료(비디오 시청)를 통하여 제 삼자로서 복수가치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갈등상황과 가치선택의 다양한 요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4) 나와 우리

가치관정립은 청소년 자신이 갖는 상반된 가치 때문에 개인적인 갈등도 하지만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의 혼란 때문에 가치관정립이나 기대된 가치의 수용이 용이하지 않다. 개인적인 가치의 정립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가치의 성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연출하여 청소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도와준다. 따라서 작고 비공식적인 사회단위인 가족과 비교적 큰 단위인 사회에서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의 상충의 바람직한 해결을 청소년 자신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 내지 확립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해활동: 나와 우리에 대한 이해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및 국가적인 측면에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주어진 역할에 따른 바른 가치관을 이해하고 실천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가치관 정립을 도와주도록 구성하였다.

1) 나는 어디에서

청소년기는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많은 혼란을 접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역사적 시점에서 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군의 탄생 신화를 재현해 봄으로써 역사의 시초가 어떠했는가를 이해하고, 각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극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의 역사를 신문형식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현재의 나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2) 혼란 속에서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많은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고 있다.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문제상황의 원인이 되는 것과 결과가 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하나의 문제상황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중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다르게 표출될 수 있다.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에서 가치판단을 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문제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으며, 또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함을 이해하고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순서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단위활동의 목표이다.

3) 우리는 이렇게 달라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인은 개인생활보다는 집단생활을 주로 한다. 집단생

황에서 내가 나를 보는 시각과 타인이 나를 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점에 차이점이 나는가를 이해하고 그 합리적인 수용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러 가치문제에서 내가 본 나와 타인이 본 나를 비교해 보고, 차이점과 일치점을 발견하여 차이점의 합리적인 수용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4) 우리는 하나

여러 개성들이 모여 사는 지구촌에는 다양한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남녀간의 차이, 지역간의 차이, 국가간의 차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들 차이를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흔히 접하는 책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 차이를 발견해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차이를 들어보고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지 토론해 본다.

4. 실행활동 : 나를 이기고 우리를 찾기

일반적으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실천적인 단계이다. 단기적으로는 실천을 함으로써 자기성취를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천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와 실천의 간극을 계속적으로 재확인 및 수정하여 이해와 실천을 균형 잡아갈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개발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에게 다양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 가치갈등상황에서 때로는 객관적으로 또 때로는 체계적으로 행위할 수 있도록 순차적이고 심화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1) 가치저울

자신의 가치관이 올바른 것인지 혼자의 판단으로는 알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치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가치판단을 하여 자신이 취할 행동을 결정할 것인지 불분명한 가치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자신의 가치관과 타인의 가치관을 비교해 보는 가치저울을 만들어 구체적인 가치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가치관을 저울질해 본다. 따라서 이 단위활동은 똑같은 가치갈등 상황에 대해 자신의 판단과 타인의 판단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봄으로써,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2) 나의 미래

가치갈등과 판단의 문제는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에도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미리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인식하고 이해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살 것인지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 본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계획을 설계해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할 것인지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한다.

3) 다른 사람이 되어

인간은 태아 때에는 어머니 태내에서 10개월을 살다가 세상에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부모, 형제와 더불어 살다가, 성인이 되면 배우자를 만나 자식을 낳고 살아간다.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등 가족과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소중한 관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현재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역할놀이를 통해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가족들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한 것을 실천으로 보

여주기 위한 훈련을 해본다. 따라서 나 이외의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해보는 역할극의 대본을 꾸미고 준비하여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극을 관람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실행하도록 한다.

4) 우리 안의 나

인간은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과 만난다.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을 필요로 하고 타인을 필요로 한다. 우리 사회에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 우리가 있다. 나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라는 공동체는 서로간의 사랑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한 것을 직접 타인과의 만남과 관계 형성을 통해 실행해 본다. 따라서 함께 활동하는 구성원들의 개성을 알려 주고, 그 중의 한 친구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소개하며, 한 친구를 정해 놓고 일정 시간동안 몰래 도움을 줌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과의 만남을 실행하도록 한다.

IV. 요약 및 제언

가치관정립활동은 추상적인 관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단순 행사성으로 활동이 전개되기 쉽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 청소년은 미숙하고 충동적이며, 비합리적이고 불안정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청소년을 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도덕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다보면 가치관정립활동은 지루하거나 효과가 없기 쉬우며 비현실적인 면만 부각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관정립활동의 내용은 단체활동에서 체험을 통하여 얻게되는 가치판단과 선택을 담고 있다. 수련거리는 단계별로 심화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가치에 대하여 흑백논리가 아닌 다양성을 인식시키고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가치갈등의 바람직한 해결방법과 다른 가치관에 대한 이해능력을 배양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 자신과 사회에서 바라는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서의 행위양식을 습득, 실천하는 개별적이면서도 상호 연결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개발진이 개발하고자 하는 가치관정립활동의 세단계의 내용은 청소년의 가치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므로 지도자가 융통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는다. 더욱이, 참고는 지도자들에게는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청소년에게는 수련활동 전후로 하여 가치에 대한 참고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도자는 바람직한 가치관정립을 위하여 단기적인 활동효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러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얻게되는 장기적이고 확산적인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본 개발진의 수련거리 개발 의도이다.

